

포천중문의대 차병원그룹 미국 병원 인수 송우신도시 탈북자 집단 정착에 따른 과제

국내 불임시술과 생식의학 등 의료기술 수출



차병원그룹 차광렬(왼쪽 세번째) 박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유니온호텔에서 미국 테넷그룹의 에릭 테크먼(오른쪽 두번째) 부회장과 병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포천중문의과대 차병원그룹은 11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유니온호텔 로즈룸에서 포천중문의과대 설립자인 차광렬박사가 미국 테넷그룹의 에릭 테크먼 부회장과 킴 오브 에인절스 할리우드 장르병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설계보수비용 등 모두 8000만달러에 달한다. 차 박사는 조인식 후 "이번에 인수한 병원을 통해 불임시술과 생식의학 등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국내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즐기게 해 포천 관련 치료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시된 불임·생식의학분야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차 박사는 "앞으로 아동과 여성을 비롯해 암·심장·노인질환 분야에서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병원을 만들고 동시에 약을 접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식·내분비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한국 의료기술을 역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차병원의 이번 미국 병원 인수로 앞으로 의료사업을 통한 외화 획득은 물론 미국에서는 최초로 한국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병원이란 점에서 LA 한인 100만명의 의료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병원은 450병실을 갖춘 대형 메디컬센터로, 그동안 100여개 병원을 보유한 미국 제2의 의료기업 테넷그룹이 운영해 왔다. 국내 기준으로는 1천500병상 규모이며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병원은 대지 1만평에 7개동, 연면적 3만평 규모의 대형 의료시설로 연간 총매출이 10억달러다. 이 병원은 코리아타운에 위치, 한국계 환자들의 이용이 많아 24시간 한국어 간호 서비스와 한국인들을 위한 한 병동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차병원은 1999년 뉴욕C.C 불임연구소, 2002년 LA불임치료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에 대형 메디컬 센터를 인수함에 따라 미 의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포천중문의과대 차병원그룹은 앞으로 5년 내에 대체의학과 한의학 병원을 체인화하고, 나스닥(NASDAQ) 상장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중요



지난 17일 소흘읍사무소내 송우신도시탈북자 집단 정착에 따른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난 17일 소흘읍 송우신도시 탈북자 집단 정착에 따른 과제 주민공청회에서 정동문 통일부 정책지원과장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책방향과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은 ▶제3국 이탈주민에 전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 ▶국내 입국자는 빠른 안정 위해 적극적인 지원 ▶북한의 내부적 안정을 우선시 하여 북한의 인권이 좋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첫째, 과거에는 기아 때문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과 보다 나은 사회여건을 찾아서 입국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단위의 입국이 늘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노령층의 입국이 많아진 것이다. 셋째, 해외 체류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 끝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북한주민들이 입국하면 안성의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 훈련을 통해 본인들이 희망을 받아 주거지를 배정하게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은 1인 세대 기준 2천800만원이 지급되며, 1명이 증가할 경우 800만원이 추가 지급되게 된다.

또 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을 뽑아로서 일자리를 주선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육지원책으로 교육정도, 심리적인 면을 고려 고등학교학자금지원과 대학특례입학, 편입 등의 경우 학비의 50%를 면

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담당관 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좋은벗들 평화인권부 이새롬 간사는 '북한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계박상나누기운동,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 조기축구회 활성화 등 체육교류를 통한 화합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직장의 이직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주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해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과의 융화책으로 사랑방 모임을 만들어 아파트 쓰레기 버리기 등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중앙정부에서 먼저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방법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대안 및 대책 ▶지역 내 취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로선 ▶이흥구 포천시의회의원 ▶김봉균 포천시소흘읍이장협의회장 ▶차일근 대진대학교 북방연구소장 ▶조대행 동남고등학교장 ▶정병문 포천시사회복지과장 ▶안재권 경인일보기자 및 공청회 참가 주민들이 나섰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회재수첩 =

주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며칠전 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집이 쿵쿵 울리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하고 밖에 나가보니 우리집 옆 골목길에 비만 오면 빗물이 고여 고이는 물을 빼내기 위해 하수도 맨홀을 연결시키는 공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대가 낮아 빗물이 고이는 쪽에 맨홀을 묻어서 배수를 해야지 지대가 높은 우리집 아래부분을 파내는 것이 내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며 남의 집 아래부분을 파려면 사전에 집주인에게 한번쯤 상의라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공사를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알하는 사람은 그저 '대립'에서 하는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립'이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위해 하는 일이라 협조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기를 연결해 주었는데 난데없이 집 전체가 울리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전기를 끌어다가 우리집 아래부분에 묻어둔 주춧돌을 깨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나는 당장 전기를 끊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 후 마을 이장에게 전화하여 이 공사에 대해 물었으나 이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였고, 면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면사무소에서라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수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하수도 사업소에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비가 올 때마다 골목길에 빗물이 고여 드나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민원을 제기하여 하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립건설에서 하청을 맡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공사감리자에게 항의하자 공사감리자

의 설명은 지대가 낮은 쪽을 파내는 것이 당연한 지대쪽의 집 주인이 하지 못하게 하여 부득이 우리집 쪽을 굴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하고 골목을 굴착하는 대신 시멘트로 낮은 지대를 높이겠다는 대답과 함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들었다.

그후 골목길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지만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막힌다. 만일 우리집 주춧돌을 파내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은 분명 깨지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을 게 아닌가.

공사를 편하게 하려고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되고 마는가.

주민을 위해 하는 공사인 만큼 이로 인해 또 다른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생각해보고 공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주부명예기자 영복면지부장 김미경 hsd5333@hanmail.net

'포천중소기업대상' 후보 접수

포천시는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포천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기로 하고 11월 30일까지 후보신청을 받는다.

후보대상은 ▶포천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체와 ▶이같은 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 상시 근로자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해야한다.

시상분야는 기술혁신, 생산성향상, 해외시장개척, 환경개선 등이며 ▶기술혁신분야의 경우, 국내의 규격인증 및 공업소유권 보유현황, 기술·연구비 투자율, 제품우수성, 기술인력 및 시설보유율 등을 ▶생산성향상 분야는 1인당 생산성 향상율과 자산대비 매출액 증가율, 생산공정(공법)개선 및 생산근로자 교육연수 실적 등을 ▶해외시장개척분야는 제품우수성과 수출증가율, 국내의 판매망 및 판매시설 보유현황,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수출 대상국수 등을 ▶환경개선분야는 환경배출시설 허가현황, 작업환경개선 실적, 휴게실·식당·기숙사 보유 현황, 산업재해·직업병·임금체불 유무 등을 각각 평가하게 된다.

포천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엄정하게 심의한 뒤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업체 3곳과 근로자 3명을 수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12월 말 포천시청 중무식 때 열릴 예정이며 기업체에는 상패가, 근로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포천중소기업대상 후보 추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포천상공회의소(☎031-535-0072)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이달 30일까지 추천서와 이력서, 재직증명서, 공적조서, 공적요약 및 평가표, 기업소개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지역산업과 기업지원부서(☎031-530-82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대일비니루총판'

HD, PE원단생산·쇼핑백·비닐인쇄가공전문·각종 공업용포장자재 총판




비니루	랩
락카	장화
이형제	물장화
실리콘	보루
명장갑	작업복
반코팅장갑	보호티이프
원전코팅장갑	각종티이프
고무장갑	각종콘
PVC장갑	수동밴드
	자동밴드
	마대
	마스크

PP, PE, 하이덴 / 농·공업용 필름생산/인쇄/가공/공업용 포장자재 일절

대방아파트 550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4-1
 전화 : 031)544-3627 // 팩스 : 031)544-3627
 휴대폰 : 011-9070-3627 // 대표 : 김 영 세